

간 행 사

제17권 제2호의 출간을 맞게 되는 성균관 법학과 비교법연구소는 분주했지만 비교적 안정된 한해를 보냈다. 지난 2년을 돌이켜볼 때 무엇보다도 큰 감회는 자활연구소의 한계로 인해 어려웠던 논문집 출간이 정상궤도에 진입했다는 점이다. 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등재후보지로서의 인정에 이어 출판비 지원을 받게 된 점과 많은 수의 논문투고가 있으며, 특히 투고자와 관련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으로 투고논문의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져서 논문집의 질적 수준이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여러 교수님들의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이런 일들이 쌓여 논문집의 내실화가 이루어지고 앞으로 연구소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 제17권 제2호는 실보 김영수 교수님의 정년기념호로 제작하였다. 김영수 교수님은 훌륭한 저서와 연구논문을 통해 학자로서 헌법발전에 기여하신 바 크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학교와 동문 그리고 제자를 위하고자 하는 열정은 후학들에게 큰 귀감으로 자리 잡아 왔다. 이제 교수로서 정해진 시간을 마무리하게 되는 시점에서 동료교수님들과 제자 및 후학의 글을 모아 성균관법학 기념호로 출간하게 된 것은 각별한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번 기념호는 원고가 넘쳐 2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원래 기고해주신 분들의 취지에 맞추어 2호와 3호를 모두 김영수 교수님 정년기념호로 제작하게 된 점 해량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매번 별다른 심사료를 드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논문집의 발간을 위하여 흔쾌히 논문심사를 맡아주신 여러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바쁜 가운데서도 옥고를 보내 주신 투고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그동안 연구소의 조교로서 논문집발간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박사과정의 조재현, 신동윤군 그리고 석사과정의 양소영양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2005년 12월 30일

비교법연구소 소장

김 형 성